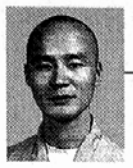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금강경 ③

부처님 근본정신은 '본래 空'
애욕·집착 버리면 마음 평온

신앙은 그 자체로도 큰 힘을 갖거니와, 그것은 또 인간의 지혜를 일깨워 주고 때로는 무한한 용기와 굳은 의지를 주기도 한다. 부처님은 우리들이 부동의 신념과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나아가서는 인생의 즐거움과 광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금강경〉은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중심으로 하여 설해지고 있다. 신(信)으로써 들어옴을 삼는데, 만약 부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존경하고 믿는 생각이 없으면 어찌 배우려는 뜻이 일어나겠는가. 대개 교법을 사람에게 실현하려 함에는 제일 먼저 이해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해의 궁극은 행함에 있다. 실천을 바탕으로 신해행(信解行) 세 가지를 통일하고, 증(證)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현실과 이상을 조화, 통일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금강경〉 제6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 가운데 "한 순간에 청정한 믿음을 낳는다(一念生淨信者)"는 말이 있다. 선악, 범부와 성인 등의 견해를 일으키고 갖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을 가지고는 청정한 믿음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몰입을 하여 일념(一念)에 이르고 삼매에 이르며, 구경에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지극하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금강경〉에서는 이에 대해 "여래(부처님)는 진정한 말씀을 하는 이며, 실제인 말씀을 하는 이고, 진여의 말씀을 하는 이며, 속이지 않는 말씀을 하는 이고, 틀리지 않는 말씀을 하는 이(如來是眞語者實語者如語者不狂語者不異語者)"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대보리법(大菩提法: 큰 깨달음의 법)을 설한다는 말이며, '실제인 말씀'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 행이 말과 상응한다는 것이다. '진여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사리의 법(事理法) 즉, 연기법은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아서 오직 하나의 실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속이지 않는 말씀'이란 부처님은 진정하고 실제이고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여 결정하고 중생을 속이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틀리지 않는 말씀'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법이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이 시종일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온갖 집착과 애증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시고 큰 소리로 꾸짖는 듯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제자로 또는 그 말씀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은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는 말로 다짐을 해놓고, 법문의 골자는 실(實)도 없고 허(虛)도 없는 중도실상(中道實相)이라는 것을 뚜렷이 일러주셨다. 부처님의 근본정신이 중도실상 즉 본래공(本來空)임을 알려주시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종일관이 중도실상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오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집착하는 우리들에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등의 분별과 집착과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편안히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라는 가르침이다.

이제 깨어나야 한다. 애욕과 집착을 버리고 뛰어난 슬기로움으로 평온하고 안락한 세계로 향하는 자만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며 마음의 눈을 뜬 자이다. 〈금강경〉은 바로 마음의 눈을 열게 하는 경이며, 마음을 편안히 안주시킬 수 있는 경이며, 항상 자제하고 억제하는 속에서 점점 마음을 항복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경이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이 경을 읽는지도 모른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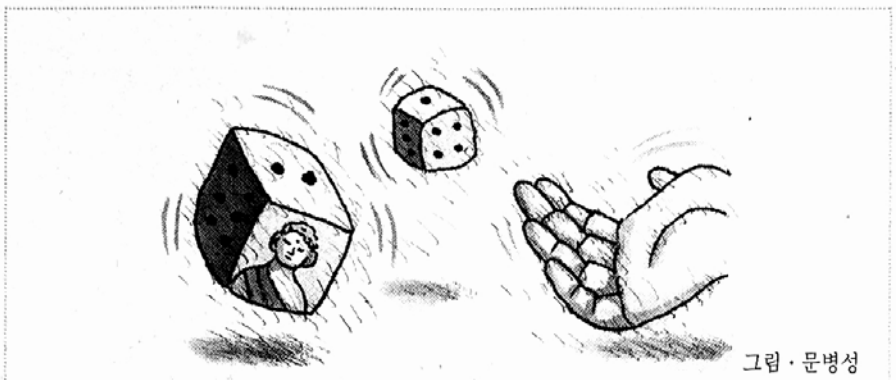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과학발달에 흔들리는 종교

불교와 과학 〈3〉

선재의 고민

이선재 박사는 이미 노벨 물리학상을 두 번이나 받은 이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였다. 평생 실험실과 집만을 오가던 그가 하루는 시장통 한구석에 몰려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재미 삼아 주사위 노름을 우연히 하게 되었다. 그는 물론 호주머니 돈을 다 잃었고 다음날 다시 가서 더 큰돈을 잃었다. 그 다음날 다시 가게 되었고, 이렇게 노름중독에 빠져 주사위 노름판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고 많은 은행 빚까지 지게 되었다. 그를 지켜보던 주변사람들이 그의 도벽을 끊게 하려고, 그를 시골로 내려가게 하였다. 이선재 박사는 시골로 내려가면서 노름은 그만 두었으나, 주사위에 대한 맺힌 한 때문에, 그가 실험실에서 쓰던 첨단 실험장비를 동원하여 국제주사위연구소라는 간판을 달고 주사위 연구를 시작하였다.

존재하는 모든 주사위를 다 사다 모아 주사위의 표면 재질과 질량, 모서리 각도에 따른 공기저항, 낙하표면의 재질에 따른 낙하순간의 저항변수들, 베르누이 정리에 따른 주사위의 미세 회전량, 투사환경의 유체역학, 주변온도에 따른 압력의 변화, 컴퓨터 투사력의 미세한 차이에 따른 투사체의 변이도 등, 몇 십만개의 수많은 운동변수들에 의한 초기값을 연구하여 그에 따른 결과값을 내고자 하였다. 즉 던져진 주사위의 숫자를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필연의 결과로 얻으려는 과학탐구를 한 것이다. 이 박사는 주사위에 관한 한 신과 맞먹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하늘에 존재한다는 과학적 의미의 신(神)이 이를 보고 우습지도 않아 그의 의지를 하찮게 여겼다. 그런데 연구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나 이선재의 연구결과는 신의 주사위 능력에 거의 도달하게 되었다. 이선재를 우습게 보던 신은 너무나 깜짝 놀라 위기감을 느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가상적인 신의 대응조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상상할 수 있다. 첫째 기억상실증 등을 동원하여 이선재의 주사위 연구능력을 몰수하는 일이다. 둘째 주사위에 관한 한 그의 행위가 너무나 고약하기는 하지만 그 능력을 인정하여 주사위 세계에서 이선재를 자신과 공존토록 놔두는 일이다. 셋째 이선재의 행위에 너무나 분통이 터져 신이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이다. 넷째 신의 능력에 거의 따라온 이선재와의 수준을 더 벌려 놓기 위하여 신이 더 노력하는 일이다.

유전자 복제·인공지능 등 윤리 벗어나 인류 위기 연기설 등 방향제시 절실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상조건을 검토해 보자.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과학적 신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완전성, 불변성, 유일성, 절대성, 무모순성, 정지성이다. 우선 둘째 공존의 상황은 과학적 신의 유일성 조건에 위배되어 탈락된다. 넷째 조건 역시 더 노력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의 신의 상태는 완전성이 아니었음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성 조건에 위배되어 탈락된다. 첫째와 셋째 상황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실현된 종말(realized eschatology)의 상황과 유사하다. 셋째 상황은 과학적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과학이 종교를 대치하는 상황이며, 첫째 상황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총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상황이다.

유전자 복제기술과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최근 과학의 성과는 과학윤리의 범주를 벗어나 심각한 인간위기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돌리 양과 유전자 지도 공표 이후 체세포 복제기술을 통한 유전자 조작기술은 정말로 큰 인류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셋째 상황은 기독교 윤리범주와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서구윤리학에서는 가장 큰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 불교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피상적인 접근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의 세계관과 직접 부딪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은 불교계의 생각과 관계없이 앞으로 나아갈 뿐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불교에서도 그 사상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과학적 합리주의의 소산인 과학적 신 개념에 대한 재고, 과학주의와 인간주의가 충돌되는 이분법적 사유에 대한 반성, 대중 속에 만연되어 있는 과학적 신앙과 그에 따른 종말론 그리고 서구철학의 실체론적 물질관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불교는 '일체언어도단'이라는 명분 때문에, 일선과학의 발전에 대하여 너무나 허약한 공리공담만으로 대처해왔다. 불교 자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를 버리고 적극적인 실천세계를 찾아야 한다. 용수의 중론이나 불교의 사상이 응집된 연기설 혹은 화엄의 관계론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실천적 대안의 희망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그 작은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이선재의 변화를 희망하면서.

※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불교계 모금놓고 美 대선 또 '공방'

지구촌 불교 / 불교와 선거

3일 열린 미국 대선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불교를 '입방아'에 올리는 야릇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는 앨 고어 민주당 후보에게 LA 지역 사찰 모금행사에 참석한 일을 비난하고 나섰다.

불교와 선거, 공통점이라곤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두 개의 단어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대선 첫 TV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를 공략하는 포문이 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언론들은 앞다투어 미국의 선 열풍과 불교 교세의 확장을 보도하고 있지만, 선(禪) 역시 '기독교-백인'의 사회에서 '불교-유색인'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교와 선거'라는 관계는, 이러한 핸디캡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불교계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당과의 관계인 셈이다.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경우, 올해뿐만 아니라 96년에도 서래사(대만불교계 사찰) 등 LA 지역 주요 사찰 모금 행사에 참석해, 공화당과 마찰을 빚었다.

5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후보만 바뀌었을 뿐,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TV토론회에서 불교계의 모금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재연하고 있다. 선거 시즌을 맞아 미국에서 정치·사회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불교계와 두 정당의 선거 전략이 곡예비행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후보 부시와 고어(오른쪽)가 TV토론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일본에서 불교와 선거의 관계는 모금보다 더 나아가 '운동'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日신흥불교 선거운동에 여당 참패
'정교분리' 위배 우려 목소리도

6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당·공명당·보수당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참패했는데, 정치평론가들이 "창가학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 불교교단이 '반 자민당·반 공명당' 캠페인을 벌인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신흥 불교교단의 지지를 받아 온 자민당이 창가학회에 예속된 공명당과 연립하면서, 신흥 불교교단의 반발을 샀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즉, 제1야당의 약진과 공동여당의 패배는 반(反) 창가학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신흥 불교교단과 창가학회와의 세력 싸움의 결과인 셈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 불교계는 모금과 운동이라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간·직접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한 쪽은 정치·사회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쪽은 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 불교가 현실에 적응하는 노력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정교'가 분리돼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후자의 주인공들은 부처님이 자신을 찾아온 빔비사라왕을 대했던 태도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자신을 찾아 녹야원을 방문한 왕에게 부처님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존경의 예(禮)를 받고서도. 이때 부처님은 국왕이라는 신분보다는 한 인간으로 맞고 싶었고, 묵언하는 동안 왕이 스스로 옷을 벗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불교란 인간을 대하는 것이지 정치를 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2000년 10월 9일 배포!

살아생전에 「우리말화엄경」 간행불사를 해봅시다

우리말 대방광불 화엄경

백 용 성 대종사 번역 / 사재동박사 윤문
4×6배판 (크라운판) / 1,620면 (42g미색코트지) / ₩100,000원
최고급 순금 금장 양장 제본/ 인조가죽 카바

이조 500년의 배불정책 아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뜻있는 스님들은 몇 년을 주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탁발로 시주받은 곡물과 푼돈을 모아 몇질의 화엄경을 간행하여 새로 조성하는 불상의 복장에 넣기도 하고, 법당 상단의 부처님 좌우에 모시고 조석으로 예불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귀의처로 삼았습니다.

「인과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화엄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거나, 「화엄경」을 만져보는 공덕만으로도 지옥·아귀·축생에 떨어지는 업보를 면한다 하였고, 만약 「화엄경」을 간행하면 제불보살과 화엄신장의 옹호로 삼재팔난·관재구설·병고액란이 소멸되고, 선망부모 등 영가가 천도되어 생전에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특히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어머니가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면 구천을 떠돌던 중음신의 영아가 원한을 풀고 좋은 세상에 난다' 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는

「우리말 화엄경」을 번역하신 백용성 큰스님은 3·1독립운동의 33인중의 한분이며 동산·고암 종정스님의 스승이고, 성철종정과 광덕·도문스님의 노스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허스님과 함께 당대 최고의 대 선지식이었고, 생전에 치아에서 수십과의 생사리가 나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선(禪)과 교(敎)를 통달한 도인의 혜안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말 화엄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귀한 법보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조석으로 기도생활을 하는 불자라면 불상 대신 반드시 「화엄경」을 모셔야 합니다. 「화엄경」은 법신불(法身佛)이므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 단체 동참시(30권 이상) 권당 8만원. 동참자 이름과 발원문을 별도로 화엄경에 인쇄합니다.
♣ 불사회향·회갑·진갑·칠순·49재·100재·영가천도를 위한 법공양

단 한권의 화엄경을 주문하시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문하시면 ₩85,000원(송료포함)

■주문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4-7614, 739-8745 FAX (02)735-2344
· 계좌 : 농협 053-01-102503 (김정길) 신한 324-12-407937 (김정길)

문서포교에 앞장서는 弘法院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9-8745 / 734-7614 / FAX 735-2344